2025-09-15

HI FX Brief

프랑스 신용등급 강등과 FOMC

FX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imfnsec.com

주간 동향: 물가지표 안도감

- 8월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생산자물가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우려와 달리 물가지표가 시장에 안도감을 줌. 이에 따른 미국 10년 국채 금리 하락 폭 확대로 달러화는 소폭의 약세를 기록함
- 유로화는 미국 물가 안도감에 미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프랑스 정국불안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강등 뉴스로 강세폭이 축소됨
- 엔화는 달러 약세와 일본 증시의 사상 최고치 랠리 속에서도 소폭의 약세를 기록함.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퇴임 이후 신임 총리를 둘러싼 불확실성 및 미-일 외환 협정 타결 등이 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함
- 역외 위안화는 보합세를 보임. 8월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년동월 -0.4%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위안화 강세를 제한함
- 호주달러는 큰 폭의 강세를 보임. 구리 강세 등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이 호주달러 강세로 이어짐
- 달러-원 환율은 좁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갔지만 금요일 야간거래에서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뉴스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체 마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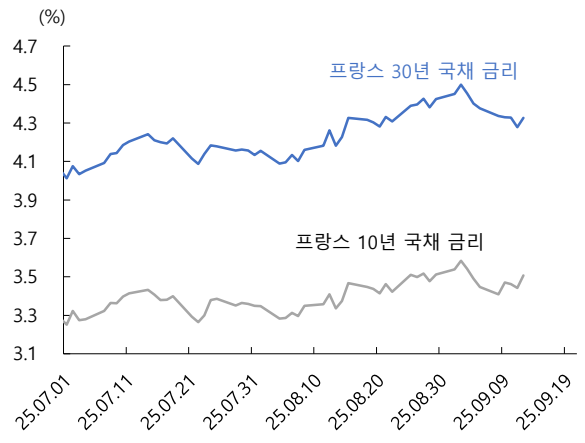
	9월 12일 종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97.6	-0.22	-10.08
유로-달러	1.173	0.15	13.33
달러-엔	147.7	0.17	-6.06
역외 달러-위안	7.12	-0.02	-2.91
호주달러-달러	0.66	1.39	7.43
달러-원	1,395.4	0.50	-5.22

달러-원 환율 종가는 익일 2시 기준

금주: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여진과 FOMC회의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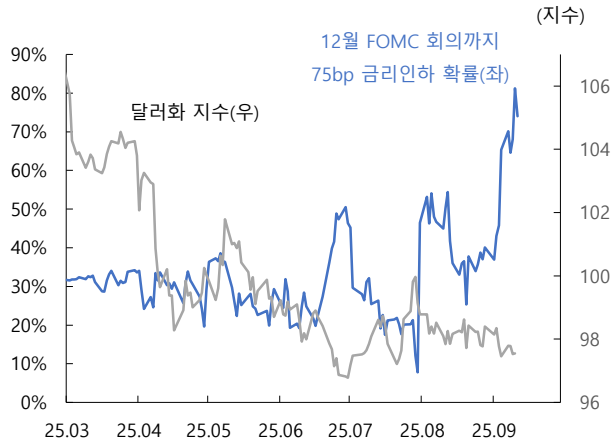
- 예상은 되었지만 피치사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'AA-'에서 'A+'로 한 단계 강등한 것이 유로화에 부담을 줄 수 있음. 특히 금주에는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발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를 주목해야 할 것임. 만약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이슈로 국채시장 불안이 재차 가시화된다면 달러 강세 압력이 확대될 것임. 한편, 9월 FOMC회의에서는 25bp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파월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및 향후 금리 전망을 의미하는 점도표가 올해 세 번의 금리 인하 기대를 충족시킬지도 달러화에 중요한 변수임
-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및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달러-원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임.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380~1,410원으로 전망함

그림1.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초장기 국채금리 상승폭은 일단 제한적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. 9월 FOMC회의를 포함해 연말까지 3차례 금리인하(75bp 금리인하)를 예상하는 금융시장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-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